

# 민주 “지지층 결집 가속”...국힘 “정권교체 고지 선점”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효과 촉각

민주 광주시당 “비열한 야합” 규탄

24시간 비상체제 전환 총력전

출향인사 독려 호남 결집 나서

국민의힘 “단일화는 국민 명령”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단일화가 대선 사전투표일(4~5일) 하루 앞선 3일 전격 성사되면서 그 파급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과거 대선만큼 결집력을 보이지 않았던 호남 표심이 이번 야권 단일화를 계기로 결집하면서 다른 지역의 호남 향우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정치개혁과 통합정부를 앞세운 정치교체론으로 외연 확장을 꾀하며 구도 전환을 노렸던 민주당으로서는 야권 단일화라는 임무를 당했지만, 실제 표심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야권 단일화가 ‘비열한 야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거대책위원회를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진보진영과 호남 표심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야권 단일화를 통해 ‘정권심판론 구도’가 완성돼 정치교체가 아닌 정권교체로 선거이슈가 부각되면서 윤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점했다며 ‘단일화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야권 단일화에 대해 ‘야합’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광주·전남 선대위는 이날부터 선대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위원회 선대위도 24시간 상주체제인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막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국회의원과 선거대책위원은 이날 특별성명을 내고 “이번 두 야당 후보의 야합은 민심이 이재명 후보로 흐르자 위기의식을 느낀 두 야당 후보가 자리 나누 먹기로 국민과의 약속을 배신한 것”이라면서 “이번 야합을 분쇄하기 위해 오늘부터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송갑석(서구갑) 광주시당위원장은 “야권 단일화로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 결집이 가속화 할 것”이라면서 “호남의 사전 투표율도 높을 것이며, 80% 이상의 득표를 목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또 송 위원장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4일 오전 전남대학교에서 ‘생애 첫 투표자 사전투표’ 행사를 진행하고, 호남권 출향 인사 투표 독려 등을 통해 호남 결집 효과를 수도권으로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을 찾아 이재명 대선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송영길 당 대표도 이날 여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야권 단일화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여수시 여서동 미관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두 야권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제한하는 이런 잘못된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와 반칙에 대해 여수시민들이 발목을 잡아주실 거라 확신한다”고 외쳤다.

송 대표는 “안철수 후보는 주술에 걸린 듯 정권교체만 줄곧 떠들어댔다. 다당제를 주장하던 안 후보



## 비열한 야합! 광주가 심판해 주십시오

3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재단 인근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선거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 결국 양당제에 굴복한 것 아니냐”고 꼬집은 뒤 “안 후보에 대해 광창히 실망하고 유감스럽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통합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도와 나라를 지켜낸 계 여수 출신들”이라고 거론한 뒤 “대한민국이 다시 검찰 공화국 체제로 돌아가지 않도록 여수시민들이 지켜달라.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면 호남의 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껏 뛰겠다”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한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사전투표

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4-5일 사전투표일은 가까운 투표소에 가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준비된 민생 대통령, 소년공 출신 서민 대통령,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꼭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지원 유세장에서는 여수수산단체연합, 여수수산물왕문노조, 여수농아인협회, 전남행방어업인협회 등 단체들의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도 이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후보의 단일화를 계기로 정권교체를 위한 표심이 결집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선거 내내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여론이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민심에 비해 20% 높게 나왔다”면서 “야권 단일화는 절반 이상 국민들의 명령이었다”고 단일화에 대한 선명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광주시당이 이번 야권 단일화를 ‘야합’이라고 한다면 ‘DJP(김대중-김종필)연합’과 이재명-김동연 후보의 단일화도 ‘야합’이냐?”면서 민주당의 ‘야합’ 공세를 차단하는 분위기가

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국민의힘·국민의당 대선 후 합당 추진

尹·安 ‘가치연대’로 단일화

인수위도 정부도 공동 구성

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3일 야권 단일화를 이룬 뒤 대선 후 합당 작업도 진행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3일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 두 후보는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저희 두 사람이 정권교체의 민의에 부응해 함께 만들고자 하는 정부는 미래지향적이며 개혁적인 국민통합정부”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들은 “국민통합정부는 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닐 것”이라며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권교체의 힘으로 정치교체, 시대교체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 후보는 윤 후보가 선거에서 이길 경

우 구성되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하며 내각 구성 등 새 정부 청사진을 윤 후보와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후보는 일단 눈앞의 대선 승리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며 구체적인 공동정부 운영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안 후보가 인수위원장이거나 국무총리직 등을 직접 맡아 국정 파트너로 나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동정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가 지난달 27일 안 후보의 결렬 선언으로 단일화 협상이 무산되기 전까지 제안했던 ‘대등한 자격의 공동 인사권’ 등이 주목된다. 당시 제안은 새 정부 조각과 청와대 주요 보직 인선 과정에서 안 후보의 인사 추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둘 중 하나라도 반대하면 사실상 인사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해 발표하지는 것이었다.

다만, 양측은 합당은 일단 선거 뒤로 미룬 상태다.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사실상 백기 투항한 국민의당과 ‘점령군’인 국민의힘이 합당을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오는 6월 치르는 지방선거 공천 등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대선 표심 잡기 경쟁 온라인 공간서 더 뜨겁네

메타버스 선거사무소 운영

SNS 등 가상공간 화력 집중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4일)를 하루 앞두고 막판 표심 경쟁이 뜨겁다.

3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전격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사전투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 여야 선대위는 장외 유세는 물론 온라인 공간 등에서 이색적인 선거전을 펼치며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 19 여파로 여야는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대면 선거운동 대신, 소셜미디어(SNS) 등 가상공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현행 선거운동, 섬 마을을 찾아가는 선거 운동 등 이색 홍보전도 펼치고 있다.

민주당 광주 대안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친환경 선거와 메타버스 캠페인을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저탄소·친

환경을 위해 선대위에서 전자문서와 개인 컵 사용을 일상화하는 ‘그린캠프’를 운영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선거사무소인 ‘이재명의 메타버스’를 선보였다.

‘AI 윤석열’을 통해 ‘코로나 19 시대’ 가상 공간 선거운동을 확대한 국민의힘도 최근 호남지역 내 SNS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이준석 대표가 쏘아 올린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이 SNS 상에서 논란이 되면서 젊은 층을 겨냥한 ‘가상공간 선거 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또 이번 대선에서는 때 아닌 ‘섬마을 투어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유세차를 배에 싣고 흑산도를 다녀가면서 “흑산도에 지금까지 유세차가 들어간 적이 있을 까요”라며 민주당을 겨냥하자,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신안군 유세차는 오늘도 장산도를 다녀왔고, 신안의 섬을 계속 순회할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서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도 흑산도를

다녀왔는데, 흑시 귀 당은 이번이 처음이신가요?”라면서 “신안과 섬 주민을 위한 고민은 부디 말이 아닌 정책과 결과로 보여달라”고 지적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현열’을 떠올리게 하는 ‘현열 선거 운동’도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탓에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 현열을 통해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북구갑 선거대책위원회와 함께 현열의집 전대 용봉정에서 단체현열 캠페인을 했다. 운영덕 국회의원도 자신의 지역구 선거운동원들과 현열 캠페인을 벌였다.

이 밖에도 광주에서 사전투표 경쟁도 불이 붙었다. 이준석 대표가 4일 오전 8시 전남대에서 사전투표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날 오전 같은 곳에서 ‘생애 첫 투표자 사전투표’ 행사를 진행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한 표의 무게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듭니다

##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투표

**3월 9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오후 6시~오후 7시 30분  
※ 단, 농산어촌 거주 교통약자인 확진·격리 유권자는 관할 보건소 허가 시 오후 6시 전 투표 가능

사전투표

**3월 4일(금)~5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